

추석 명절 성묘 예배

목상기도

다 같이

찬 송

28장

다 같이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2.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아멘

기 도

말 은 이

성경봉독

창세기 35장 1-5절

말 은 이

1.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벰엘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2.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3. 우리가 일어나
벰엘로 올라가자 내 환난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4.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겔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5.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말 씬

일어나 벰엘로 올라가라

말 은 이

야곱의 아들들이 누이 디나를 욕되게 한 세겔 성 사람들을 죽이고 노략질한 일 때문에
야곱 가족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토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
길에도 뜻밖의 사고와 아픔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보통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절망할 수 있지만 야곱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키질을 하면 할수록 안으로 들어오는 알곡처럼
야곱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프고 두려운 야곱에게 “일어나 벰엘로 올라가라”
라고 하십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치듯 떠났던 그 때,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 다시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와 소망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회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큰 아픔을 겪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곱에게 벰엘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언약을 받았던 그 은혜의 자리에 제단을 쌓음으로써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려 하십니다.

슬플 때, 두렵고 아플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찾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로부터 우리가 믿음과 위로와 힘을 얻은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도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벰엘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자 야곱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야곱은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이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실만한
모든 것들도 다 세겔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벰엘을 향해 출발합니다. 이러한
순종은 오늘 우리에게도 모범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의 모습과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믿음의 족장 야곱은 자신의 가족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명절을 맞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큰 은혜, 바로 우리 육신의 부모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통해 우리에게 건강함과 보살핌, 사랑과 헌신,
돌봄과 중보의 기도, 그리고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은혜입니다. 야곱처럼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믿음의 사람에게도 임합니다. 그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내게 베풀어주신 은혜의 자리인 이 자리에서 야곱처럼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를 다시금 상기하며 야곱과 그 가족처럼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결단과 용기가 우리 모든 가족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 도

설 교 자

찬 송

301장

다 같이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야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 주님 다시 뵈을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기도문

다 같이